51-80-건설1월 1904.6.17 2:44 AM 페이지80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30년넘게 햇빛한번 보지 못하고갇혀있던 청계천구조물을복개,
과연제 모습을 찾아낼수 있을까 하는모두의염려와의구심 속에서 공사를시작했다.
그러나지금은 제모습을찾아 하나둘씩 복원되고 있는청계천의다리들을보고 있노라면
우리 모두가하면 된다는 단단한 각오만있으면충분히해낼 수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다.**

강정률
청계천복원공사제2공구현장
소장/ LG건설

한때는 경제 성장의 상징물로 위용을 자랑하며 도심 한복판에 버티고 있던 청계고가도로의 흔적을 없앤 지도 벌써 1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30년 넘게 햇빛 한번보지못하고갇혀있던청계천구조물을복개, 과연 제모습을찾아낼수있을까하는모두의염려와의구심 속에서공사를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 모습을 찾아 하나둘씩 복원되고 있는 청계천의 다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모두가 하면 된다는단단한각오만있으면충분히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되찾게된다. 또한, 이공사를수행하기위해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조직인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발족시켰고 매주 회의를통해공사의진척도를점검하는한편각종문제점을해결했기에지금의결과를이룰수있었다고생각한다.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변 상가 및 상인들의 민원은 예상되었다. 특히 내가 맡은 2공구, 청계 5가부터 8가까지는 노점상이 수십 년동안생활의터전으로버티고있었기 때문에이모든난관을어떻게다해결해야하나앞이캄캄할정도였다. 고가철거중계속되는시비와 민원들로사무실은 민원인들의농성장이 되기도했지만 추진본부가 상인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나섬으로써고가철거를무사히마칠수있었다.

고가철거후양안도로를시공하기전보도정비가가장문제점이되었다. 바로노점상철거문제다. 수십년동안생활의터전으로 삼고있었다고버티는데장비만투입되면공사방해가계속되어도 저히작업을진행할수없었다. 서울시는대안으로동대문종합운동장에노점상을이전하려고계획을세우고설득을해보았다.

그러나일부노점상들은수용을했지만반대파에의해좀처럼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상태였다. 결국청계천 복원 공사의순조로운공정진행을위해2003년 11월 30일을디데이로정하고노점상강제철거작전에돌입했다.

주로 청계 7가부터 8가 사이에서 집단적 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자재(H-빔, 가드레일, 펜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해를 시도하던 노점상들을 한 명의 인명 사고도 없이 무사히 진압하였다. 노점상 철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늦어진 공정 만회를 위해 복개 구조물 철거에뛰어들면서복원사업은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벌써 1년 전 이야기다. 이곳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휴일및주야를뛰다보니이따금씩몇년을더산기분이들때가 종종있다.

2002년 12월처음T/K 설계부터참여하면서청계천복원공사에 혼신을다하면서지내오고있다. 우리현장의모든직원들은청계천 복원 공사가 무사히마무리되면시민들에게좋은환경의 보금자리를제공할수있다는뿌듯한마음으로혼연일체가되어공사를아무 사고없이이끌어가고있다.

먼저공사로인해불편을감수하면서도여러가지불편함과불이익에도이를기꺼이참아내며기다려주시는주변상가의여러분들, 그리고교통정체속에서도아무런불평 없이이곳청계천복원공사현장을다니시는시민들에게도감사의말을전하고싶다.

작년말현재 88%의공정률을보이고있는이곳청계천복원공사현장에도 드디어 을유년이밝았다. 오는9월말이면맑은물 속에물고기가중랑천에서거슬러오고, 청계천주변을산책하는시민들의행복한모습을생각하면서남은공사기간에도무사고시공을 기원해본다.CJ